

# 대둔산의 식생

김현숙 박사

대둔산의 식생은 대체로 높이 600m를 경계로 그 이하에는 소나무·굴참나무·상수리나무 등이 무성하고, 그 이상에는 신갈나무·졸참나무 등 낙엽활엽수가 우점한다. 이밖에도 암벽에는 돌양지꽃·바위채송화·매화말발도리 등이 자라고 숲 하층에는 미치광이풀·천마·제비난초·나나벌이난초 등 각종 희귀식물이 자생한다.

특히 북동사면의 태고사 계곡은 봄꽃이 장관을 이루는데 노루귀, 나도바람꽃, 얼레지, 애기괭이눈, 개별꽃, 제비꽃, 미치광이풀, 현호색, 산자고, 달래, 산괴불주머니 등 봄꽃들이 계곡을 수놓는다. 이번 탐사는 노루귀와 바람꽃을 찾아서 대둔산으로 탐사를 떠나본다.

대둔산은 1977년 3월에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일대의 38.1km<sup>2</sup>가 전라북도 도립공원으로, 1980년 5월에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양촌면과 금산군 진산면 일대의 24.54km<sup>2</sup>가 충청남도 도립공원으로 각각 지정되었다.

대둔산은 전라북도 완주군 운주면, 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충청남도 금산군 진산면에 걸쳐 있으며 높이는 878m이다. 또한 ‘호남의 금강산’이라고 불리며 대둔(大菴)이라는 명칭은 ‘인적이 드문 벽산 두메산골의 험준하고 큰 산봉우리’를 의미한다.

대둔산은 노령산맥에 속하며 최고봉인 마천대(摩天臺)를 중심으로 남으로는 만경강 북으로는 갑천(벌곡천, 유등천)의 발원지로 충남과 호남의 경계를 이루는 산으로 지정학적으로도 의미가 있는 산이다.

대둔산의 전라북도 쪽에는 주요 사찰로 안심사(安心寺)와 화암사(花巖寺) 등이 있으며, 진산의 태고사(太古寺)와 벌곡의 신고운사(新孤雲寺) 등 고찰이 있다. 특히 태고사는 신라 신문왕 때 원효(元曉)가 이 절터를 발견한 뒤 덩실덩실 춤을 추었다는 12승지(勝地) 중 한곳으로 한용운(韓龍雲)도 “태고사를 보지 않고는 천하의 승지를 논하지 말라”라고 하였다. 태고산 입구에는 조선 성리학자 송시열 선생의 글자 석문이 있다.